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6월 29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수출입과 안병화 과장(02-2110-5331), 강미숙 사무관(5333)		

주요 업종별 하반기 수출 여건에 대해 논의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잔존으로 전반적인 수출 여건은 부진할 전망 -

□ 지식경제부(장관 : 홍석우)는 '12.6.29(금) 주요 수출기업, 관련 협회, 연구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함

○ 금번 회의는 상반기 수출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여건 및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임

□ 조석 제2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상반기는 유로존 위기와 중국의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수출도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었다고 지적함

○ 주요국의 경제 회복이 연초 전망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악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각별한 수출 확대 노력을 쏟아야 할 때임을 강조함

□ 이 날 회의에서 산업연구원은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의 부진이 이어지고, 국제유가, 환율 등 주요 변수들의 변동성도 커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 2012년 수출은 하반기에도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 하반기는 세계경기 둔화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공조와 이에 따른 유로존 불확실성 일부 완화 등에 힘입어 상반기보다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함

○ 산업별로는 경기 민감도가 높은 10대 주력 산업*의 수출 증가세가 총 수출 증가세를 하회하고,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부품, 장비, 정밀기기 등이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구조의 다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임

*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 업종별 대표 수출기업과 관련 단체들은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 확대에 애로가 있음에 공감하면서도 FTA 등 기회요인을 활용해 나갈 계획임을 표명함

○ 선진국 중심의 수요 침체,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하락, 신흥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수출의 급격한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였음

* 브라질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차의 공산품세 30%p 인상 결정('11.12월~)

○ 전반적 어려움 속에서도 FTA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시장 선점 효과 등은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며,

-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가 빠르게 회복한다면 하반기 수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그 동안 어려움을 겪어 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최근 단가 반등세 시현으로 하반기 수출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정부는 그간 겪었던 여러 번의 위기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수출"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 수출의 지속적 확대, 무역 규모 1조 달러 이상 기조를 견지하기 위해 민·관 공조 체제의 구축을 통한 공동 노력을 강조함

○ 무역금융 확대, 해외 마케팅 강화, FTA 활용 애로 해결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총력 지원 체제를 상시화하고,

- FTA 활용, 제 2의 중동붐, 전세계로 확산되는 한류 등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하반기 위기 극복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될 FTA의 효과를 본격 실현하기 위해 FTA 수출 선도기업을 통한 성과 창출, 체결국별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수출용 중간재 위주에서 내수용 중간재와 소비재 중심의 수출 구조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省市별 차별화된 내수시장 개척 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임

○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부진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동의 오일머니를 타겟으로 다양한 진출 방안을 모색중으로

- 에너지·플랜트 분야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IT·의료 등 신산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 지경부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연중 수출 확대에 애로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 지속적으로 수출입 실적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출 업종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임

첨부 1 :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요
첨부 2 : 업종별 하반기 수출 여건

참고 1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요

1. 회의 목적

□ 최근 유로존 불확실성 증가 등 하반기 대외여건 개선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가운데, 업종별 하반기 수출입 여건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 특히, 업종별 하반기 수출입 여건 점검을 통해 연간 수출입 전망 수정을 검토하고, 향후 수출 확대 정책 등에 반영

2.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12.6.29(금), 10:30~11:30 / 한국기술센터빌딩 9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지경부(2차관 주재), 주요 업종, 연구소 관계자 등 15여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석유화학	한화 케미칼	대표이사	방한홍
철강	POSCO	부사장	조뇌하
무선통신기기	삼성전자	부사장	홍원표
디스플레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부사장	송백규
조선	STX 조선해양	부사장	신성수
자동차	현대자동차	전무	이용우
반도체	한국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양준철
일반기계	한국 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	박영탁
수출입 전망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강두용
수출입 전망	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신승관

□ 진행 순서

시 간		내용	비고
10:30~10:35	5"	인사말씀	차관
10:35~10:45	10"	최근 수출입 동향 및 향후 전망	산업연구원
10:45~11:25	40"	업종별 수출여건 및 애로사항 건의	참석자 전원
11:25~11:30	5"	마무리 말씀	차관

참고 2 업종별 하반기 수출 여건

업종	수출 여건
반도체	·최근 주요 품목의 단가 상승, 스마트 시장 확산에 따른 시스템 반도체 수출 지속 증가 등으로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 대비 개선될 전망 * 시스템시장(억불)/성장률(%) : ('11.2H) 9,550 / 8.1 → ('12.2H) 10,287 / 7.7
디스플레이	·선진국 경기 둔화 등으로 수요 불확실성은 지속되나, LCD 패널 수급 여건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하반기 수출은 소폭 개선 전망 - 공급량 조절, 계절적 성수기 도래 등으로 LCD 패널 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 * 대형 LCD 공급과잉률(면적기준%) : ('12.1Q) 17.7 (2Q) 15.6 (3Q) 13.1 (4Q) 13.1 * LCD 패널가(32" TV용) : ('12.1Q) 125 (2Q) 128 (3Q) 132 (4Q) 130
조선	·旣확보한 물량에 대해 안정적 건조 활동과 선박 인도를 하고 있으나, - 수주당시 선가 약세 등으로 상반기 보다 수출액은 다소 감소할 전망
자동차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 증가율 둔화 - 유럽 재정위기, 중국 신차 등록 제한, 브라질의 공업세 인상 조치 등으로 인해 주요국 수출 감소 가능성 증가 - 또한, 미국 3사의 소형차 시장 공략, 일본업체의 경영 정상화로 글로벌 판매 경쟁 심화
철강	·세계경기 회복 지연으로 시황 부진 및 수출 단가 약세가 예상되나, 국내 주요 업체들의 수출 확대 노력을 통해 수출액은 전년 수준 유지할 전망 ·다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수입규제가 향후 수출 확대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
무선통신 기기	·갤럭시SⅢ 등 전략폰의 출하가 본격화 될 예정이나, 해외생산 확대로 인해 수출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다만, 전략폰의 선전에 힘입어 수출 감소율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
석유화학	·中 경기 부양책, 신흥국의 소비 촉진 및 투자활성화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단가 하락 등으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전망
일반기계	·對EU 수출은 지속 부진하겠으나, 러시아 등 신흥국 수요가 지속 유지되고, 미국 건설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상반기 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